

제103회 총회 임원후보 기호 추첨, 공명선거 다짐

오는 4월 16일 총회 본부서 첫 정견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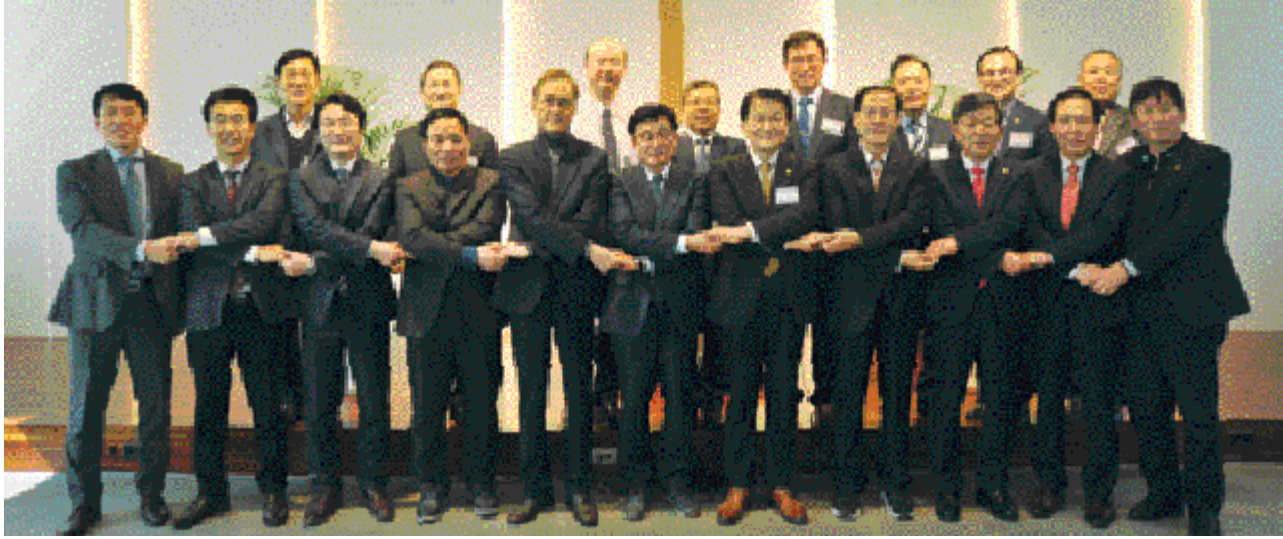
제103회 총회 임원후보 등록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정민·이하 선관위)는 지난 1일 총회본부에서 공명선거를 다짐하며 기호추첨을 갖고 후보자들에게 대한 당부와 기호를 배정했다.

추첨결과 △부총회장 후보 기호1번 이종만 목사, 기호2번 홍사진 목사, △총무 후보 기호1번 장종용 목사, 기호2번 권순달 목사, 기호3번 조홍영 목사가 배정됐다.

이날 선관위는 정견발표에 대한 방법과 유의사항도 발표했다.

4월 16일 오전10시 30분 총회본부에서 진행될 첫 정견발표는 총회장 및 부총회장 후보와 총무 후보들이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이밖에 타 후보들은 3분 이내에 각각의 소신을 대의원들 앞에서 밝힐 예정이다.

2차 정견발표는 같은 날 오후 3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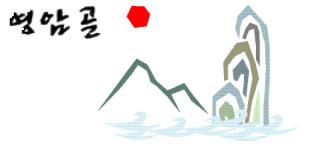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진행된다. 모두 5차례의 정견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총청원과 호남권은 4월 25일 조치원 행복교회와 군산 한마음교회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되고, 경상권은 4월 26일 김해 양문교회에서 각각 개최된다.

한편 후보등록과 기호추첨이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4월 20일 0시를 기해 공명선거기간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모든 후보들은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선거공영제도 이외의 선거운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선거공영

제는 임원후보자들의 후보방법으로 선관위 주관 하에 총회홈페이지와 성결신문에 한하여 공고하고 있으며,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들이 대의원들을 향한 사적인 접촉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원장 문정민 목사는 인사말

을 통해 "총회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임원후보자들도 스스로 자원에서 출발한 만큼 겸손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져 하나님 위한 일에 힘써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름다운 계절 4월

4월의 첫날을 제주에서 맞았다. 오랜만에 찾은 제주를 공기마저 다름듯하다. 청정하고 맑고 화려하다. 본래 제주를 청정하고 맑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화려한 것은 봄꽃들이 활짝 꽃잎을 열었기 때문인듯하다. 벚꽃이 만개하였고, 철쭉꽃은 화려하고 유채꽃은 이미 절정이다. 설지코지 올라가는 길 옆에는 노란 개나리가 곱다. 물안개 짙은 바닷가 카페에 앉아있노라니 잔잔 감성이 나의 영혼을 뒤흔든다. 전날 부활절에 받은 영성이 다시금 꿈틀거린다. 이렇게 아름다운 4월은 원어 'April' 로마의 여신 아프로디테(Aphrodite)에서 나온 말이다. 로마의 4월은 따뜻하다. 올리브 나뭇잎의 새순도 제법 영글고 꽃들은 피워아름답고 대지는 생명으로 약동한다. 이토록 아름다운 계절을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기리는 뜻을 담아 그리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4월이 되면 쉽게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시구를 떠올린다. 엘리엇(T.S Eliot)의 유명한 장편시 황무지의 첫 구절이다. 황무지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 죽은 땅에서 라일락이 키워내고 / 기억과 욕망이 뒤섞고 /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로 시작되기 때문일 것이다. 겨울은 죽은 땅처럼 모든 움직이는 것들이 정지되었다. 그런데 봄비가 내리며 잠든 뿌리를 휘젓고 나니, 죽은 땅은 꿈틀꿈틀 흔들며 라일락이 피워내야 했다. 그것은 봄처럼은 힘겨움이었으리라. 그래서 엘리엇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그리스도가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에 빗대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장사지낸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마치 죽은 땅에서 라일락이 피어나듯 예수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부활은 온 땅에 빛과 생명이 부어지고 놀라운 사건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역동적이고 충격적인 일이 또 어디 있을까?

봄꽃 한 송이 한 송이가 꽃잎을 열고 피어나는 것도 부활이 아닌가? 4월은 아프로디테를 기리는 달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계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淸水 ehc3s@hammail.net

'봄꽃 처럼 번지는 전도의 열정' ... 102회기 성결인의 전도대회

지방회별 전도세미나 개최, 간증과 전도시현 등 눈길

102회기 성결인의 전도대회가 총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개교회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첫 전도 세미나가 안양지방회 열린문교회(박경순 목사)와 인천서지방회 복원교회(류우열 목사)에서 각각 개최됐다.

열린문교회에서 지난 3월 17일 개최된 1차 전도세미나에서는 총회 선교부장 라건국 목사가 설교를 했으며, 복원교회 장영희 사모의 전도간증과 전도팀의 사현이 있었다. 세미나 후에는 선교국장 허상범 목

사가 '102회기 성결인의 전도대회'를 소개하는 것으로 순서를 마쳤다. 특히 1차 세미나에서는 안양지역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 전도 간증과 복원교회 전도팀의 실제 전도의 상황을 재현하고 소개하여 큰 은혜의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또 장영희 사모의 은혜로운 전도간증은 행사에 참석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전도의 열정과 함께 전도의 불씨를 지퍼 주기에 충분했다.

이어 3월 26일에는 복원교회(류우열 목사)에서 2차 전도세미나가 개최



됐다. 선교국장 허상범 목사가 전도세미나에 대한 소개 후, 선교부장 라건국 목사의 설교, 선교부원 박경순 목사(열린문교회)의 기도가 있었다.

2부 전도세미나에서는 이주용 목사(김포예신교회)가 감사로 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도'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주용 목사는 "전도는 하나님을 하시는 것이기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전도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포예신교회 전도팀의 실제 전도상황 재현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차기 전도세미나는 4월 14일 광주지방회 세광교회(박영진 목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주강사로 복원교회 장영희 사모가 세미나를 인도한다. 같은 날 서산지방회 햇빛교회(김상형 목사)에서도 오후 2시에 이주용 목사의 인도로 전도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

총회 선교국에서는 "전도세미나가 열리는 지역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모여 은혜로운 전도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젊고 에너지 넘치는 총무! 경험과 비전, 일할 줄 아는 총무! 총무 후보 권순달 목사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Sungkyul 교관을 만들겠습니다

- 듣고 섬기는 총무, 일하는 총무, 투표 시 기권으로 화합과 조율을 이루는 총무가 되겠습니다.
- 전문성 갖춘 총회 직원, 매뉴얼 업무, 질문에 답을 주는 총회본부를 만들겠습니다.
- 1,051개 교회와 목회자를 섬기는 총무와 총회로 변화하겠습니다.
- 누락 없고 신속 정확한 행정 처리, 총회 회의와 재정은 반드시 공개, 보고하겠습니다.
- 총회 모든 의회 부서에 예산지원과 사업추진을 통해 모두가 참여하고 성장하는 교단을 만들겠습니다.
- 목회자들의 필요를 조사, 필요한 재교육이 상시 운영되는 평생교육원을 만들겠습니다.

'다가이 화해국세요!'
이백은 두 번!
이백은 두 번!



■ "변화를 위한 사업을 구상해 보았습니다. 중의(衆意)를 모아 진행하겠습니다"

- 2024 총회 의회부서 및 집행부서 임원들과 운영 정상화 방안 수립, 20·50교회 코어그룹 확보, 총회 예산 운영 계획 수립, 총회본부 각국 재정비 및 업무 매뉴얼 수립, 홈페이지 정비 및 인재풀 가능, 산하기관 교단운영협의체 발족
- 2025 국선위 협력 개척▶50▶100▶200▶500 프로세스 추진, 부교역자 워크숍을 통한 정체성 확립 및 정례회 지방교회 및 농어촌 교회 살리기 프로젝트 및 목회자·선교사 은퇴 매뉴얼 수립, 성결TV 활성화
- 2026 여성 선교대회를 통한 교단 역량 강화 및 4중복음 시대 선포 학생선교대회, 청년선교대회를 통한 여성 차세대 부흥 프로젝트 가능
- 2027 전국지방회 교회개척 프로젝트 추진, 해외선교대회를 통한 선교 패러다임 점검

(54세, 성결대 신학박사 Th.D)
안양지방회 밝은빛교회 개척, 24년 목회
국내선교위원회 교회성장분과(2005-7)
성결대, 성결신학대학원 객원교수(실천신학, 2003-22)
성결대학교 발전자문위원(2019- 현재)
총회장 인수위원(2022-2023)
총회 청년부서기, 교육부, 법제부
성결대 총동문회·신학부총동문회 현 임원
성결부흥사회 회원, 안양지방회 임원
안양시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2016-18, 2022-현재)
4개시(안양, 과천, 군포, 의왕)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2023- 현재)